

I. 개 요

1. 일시 : 2015. 2. 26. 11시
2. 장소 : 1 (102)
3. 발표자 :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고재명 과장

4. 참석자

<외부 2인>

고재명(기획재정부, 개발협력과장)
임소영(산업연구원, 개발협력팀장)

<내부 7인>

권 율(대외경제정책연구원, 개발협력팀장)
박영호(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연구위원)
정지선(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전문연구원)
이주영(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전문연구원)
이상미(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전문연구원)
이민영(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연구원)
유애라(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연구원)

4. 제 목

- EDCF 사업 타당성 조사(F/S) 내실화 방안 및 개선 사례

II. 주요 논의 사항

1) 발제내용

- ☐ 타당성 조사(F/S: Feasibility Study)는 사업형성(preparation)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.
 - 사실상 F/S는 사업 착수의 첫 번째 관문으로서 사업 개념 형성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, 부가가치가 매우 높음.
 - 따라서, F/S를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.
- ☐ F/S 단계에서의 예측치와 본사업단계에서의 설계 결과가 상이한 경우,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범위가 변경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.
 - 부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 추정 및 설계를 하는 경우, 추정치와 실질적인 사업비와 사업규모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계획을 수정해야 함. 이는 사업 지연 및 비용 추가 발생의 문제를 야기함.
- ☐ F/S를 실시할 때 ODA 수행기관간 협업을 전제로 사업을 검토한다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☐ F/S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 한국 컨설턴트의 개도국 상주 및 현지 컨설턴트 참여, ② F/S 검수 강화, ③ F/S 사업후보군(Pool) 사전 확보, ④ F/S 기간 연장, ⑤ 전문분야에 대한 staff 컨설턴트 도입, ⑥ 사업부서 참여 강화, ⑦대규모 사업의 경우 F/S 이전단계인 사업 준비 강화를 제안함.
- ☐ 사업에 대한 F/S를 실시할 경우, 현지화(localization)가 중요함.

- 최소기간(2~3개월) 이상을 현지에서 상주하면서 현지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, 사업실시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 - 특히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정치·경제·사회적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, 이러한 위험요인은 현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함.
 - EDCF는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실시기관 내 아국 컨설턴트가 상근할 수 있는 여건 마련
 - 뿐만 아니라, 현지화를 통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취득이 용이해짐.
- 다자개발은행(MDB: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)은 현지화에 중점을 두고 F/S를 수행하고 있음.
 - 아시아개발은행(ADB)이나 세계은행(WB)의 경우 1년간 수 원국 현지에서 상주하며 F/S를 실시하고 있음.
 - 6개월은 현지에서 현지조사팀을 꾸려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, 나머지 6개월의 경우 정보 및 자료를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
 - 또한, 수원국에서 상주 시 현지 네트워크를 구조화하여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음.
- EDCF에서는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수원국 출신의 석사급 연구원 3~4명을 파트타임 컨설턴트로 고용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려는 계획을 마련하였음.
 - 예산 소요는 적지만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함.
- 농업, 과학, 건축 등과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,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Staff Consultant로 1년 이내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.
- F/S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검토F/S의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해외의 외부전문가를 통한 외부평가를 실시하여 F/S 검수를 강화

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.

- F/S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수행기간을 현재 4~6개월에서 6~8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.
- MDB의 조달시장 등 해외조달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,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F/S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.
 - 2013년 기준으로 MDB 조달시장은 280억 달러이며, 이는 2011년에 비해 21억 달러가 증가하였음.
 - 단,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점유율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F/S는 사업 형성 단계에 해당하므로, 우리 기업이 해외 주요 프로젝트 형성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.
 - 특히, MDB가 발주하는 F/S 사업에 참여하여 국제적인 신뢰도를 쌓을 필요가 있음.
 - EDCF나 MDB의 사업은 현재 수원국의 조달청을 통해 발주되어 입찰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구속성 원조 규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, 우리나라 기업 및 기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임.
- F/S 사업후보군을 사전에 마련해둘 필요도 있음.
 - 최소 3년 전 준비를 거쳐 F/S 과제를 선정하고,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긴급소요 F/S 추진은 원칙적으로 제한
 -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시, 차관사업 리스트와 연계한 중장기 F/S 추진 사업 목록을 동시에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
- F/S 내실화를 통해 F/S의 활용도 및 품질, F/S 예산 운용의 정합성

을 제고하고, 아국 컨설팅 업체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함.

2) 토론 내용

- 현재 우리나라에서 F/S가 비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이유는 ① 예산 집행 시의 어려움, ② F/S에 참여하는 사람이 본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제약, ③ 관련 전문가 부재 때문이라고 사료됨.
- F/S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개발컨설팅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, 이를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?
 - 분야별 F/S의 경우,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바, 단기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영어 및 제안서 작성과 같은 개발컨설팅을 위한 기술적인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봄.
 - 중장기적으로는 F/S가 사업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F/S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함.
 - 기술뿐만 아니라 재원조달까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개발컨설팅 전문가 및 개발컨설팅 산업의 역량을 키워야 함.
 - 민관협력(PPP: Public-Private Partnership)이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MDB의 역할이 커짐. 따라서 MDB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MDB 출신 인력 활용해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.
 - GCF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는 사업, F/S 및 기후금융을 연계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.
 - 전문적인 기술과 개발협력사업 간의 연결고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함.
- F/S의 경우 독립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수(cross-check)뿐만 아니라 품질관리(quality control)이 필수적임.

- ADB나 WB는 현재 독립적인 품질관리부서를 두어 경제성, 효과성,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품질을 검토하고 있음. 따라서 기재부나 EDCF 본부 내 독립적인 품질관리부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
- 우선적으로 EDCF 내에서 F/S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- 또한, 수익성 있는 사업(bankable projects) 추진뿐만 아니라, F/S 및 사업 수행 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현재는 사업설정 후 F/S를 실시하고 있으나, F/S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
- 정부차원에서 F/S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F/S 기금을 마련하여 사업과 F/S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.
-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업준비기금(PPF: Project Preparation Funds)이나 사업형성기금(PDF: Project Development Fund) 참조
- Post-2015 하에서는 우량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에, F/S를 활용하여 수익성 있는 사업(bankable projects)을 마련해야 함.
- 재원조달을 포괄하는 사업설계를 위해 F/S를 수행해야 하며, 이를 위해 국내 개발컨설팅 산업의 역량 개발은 필수적임.